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문화 구성 과정과 여성음악가 고다 노부(幸田延, 1870~1946)

박 정 숙

1. 서론
2. 근대음악교육의 수혜자
3.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유학생, 미국과 빈 유학기
4. 근대 일본 '여성음악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 1) 도쿄음악학교 교수
 - 2) 일본 최초의 서양음악작곡가
 - 3) 고다 노부를 향한 일본 언론의 비방과 배척
 - 4) 유럽음악사정 시찰 여행
 - 5) 고다 노부의 사적 음악활동
5. 결론을 대신하여

개 요

메이지시대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양음악을 적극 도입했고,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음악을 국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고다 노부(幸田延, 1870~1946)는 근대 일본이 서양음악문화를 구성해 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음악가이다. 그녀는 일본의 근대화 교육 시스템 하에 실시된 서양식 근대음악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 유학생으로 미국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도쿄음악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일본 최초의 서양음악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남성지식인 사회는 서양음악의 권위자로 활동하는 여성인 고다 노부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갖가지 비난과 배척으로 그녀를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그녀만의 새로운 사적 음악공간에서 음악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고다 노부는 서양음악이 일본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만 일본의 서양음악역사에서 그리 비중 있게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다 노부의 행적을 조명함으로써 그녀가 여성음악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일본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논한다.

주제어: 고다 노부, 근대 일본, 여성음악가, 여성작곡가, 도쿄음악학교

1. 서론

쇄국에서 벗어나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던 메이지시대(1868~1912)의 일본은 서구 열강들과 접촉하며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정치, 군사, 경제, 외교, 교육,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개혁을 실시하고 서구의 새로운 시스템들을 적극 수용하여 근대화를 실현시켜나갔다. 서양음악은 그러한 근대 일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가 주도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고다 노부(幸田延, 1870~1946)는 근대 일본이 서양음악을 적극 도입하던 시기에 연주자로, 교육자로, 그리고 최초의 서양음악 작곡가로 통합적인 음악가로서의 전형을 보여주던 대표적 인물이며, 일본 땅에 서양음악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했던 여성 음악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의 대부 격인 이사와 슈지(伊澤修二, 1851~1917)나, 최초의 서양음악 작곡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타키 렌타로(瀧廉太郎, 1879~1903) 혹은 야마다 고사쿠(山田耕筰, 1886~1965) 등에 비하면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생소하다. 고다 노부는 대개 1889년 문부성 최초의 음악 유학생으로 그 이름을 올리거나, 메이지시대의 작가이자 문예평론가인 고다 로한(幸田露伴, 1867~1947)의 누이로, 혹은 ‘스즈키 교육법’으로 유명한 바이올린교육의 대가 스즈키 신이치(鈴木鎮一, 1898~1998)의 선생이었던 여동생 안도 고(安藤幸, 1878~1963)와 함께 메이지시대의 바이올린 선생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고다 노부의 음악교육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메이지시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음악을 적극 도입했던 그 구체적인 방식들, 즉 당대 일본인들의 근대 음악 교육관이나 서양음악문화 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유학을 다녀와 서양음악의 권위자로 활발히 활동했던 그녀였지만 결국 남성 중심

의 공적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일본남 성지식인이 규정한 성역할의 한계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녀가 여성음악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양의 음악문화 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수렴해 나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양 음악이 동양 문화권에 도입되는 과정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희미해져버린 한 여성음악가를 소개하고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의 적극적인 근대화 과정에 ‘음악’이 유용하게 쓰이는 동안 그 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것이다.

2. 근대음악교육의 수혜자

메이지정부가 ‘문명개화’ 및 ‘근대화’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신정부는 국가발전의 기초로서 국민교육이 중요하다 여겼고, 국가 주도로 전국 공통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871년 7월에 교육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문부성(文部省)을 설치하고, 다음 해인 1872년 8월에 학제(學制)를 제정, 반포하였다.¹⁾ ‘학교’라는 근대 교육기관을 만들어 교육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면서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서양식 음악교육을 포함시켰다. 메이지정부가 서양음악을 정부 주도의 학교교육시스템 내로 도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학교에는 창가(唱歌)를²⁾ 그리고

1) 민경찬, “일본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음악,” 『‘일본’의 발명과 근대』 (윤상인·박규태 편집, 이산, 2006), 183.

2) ‘창가’라는 명칭은 오래전 헤이안시대부터 ‘쇼카’(しょうか)라 불리던 궁정아악에서

중학교에는 주악(奏樂)을 교과목으로 명시하였으나, 그 음악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없어 그 실질적인 교육을 미루었다가 1879년 10월에 비로소 근대음악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부성 소속 기관으로 ‘음악취조괘’(音樂取調掛, 1879~1887)를 설립하였다.³⁾ 이때 취조괘의 담당관으로 당시 도쿄사범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사와 슈지(伊澤修二, 1851~1917)가 임명되었고,⁴⁾ 다음 해인 1880년에 미국인 음악교사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을 초청(1880~1882)하여 이사와 슈지와 함께 일본의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썼다.⁵⁾

하나의 노래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학제 속에 포함된 ‘창가’는 당시 미국의 초등교과목 중 ‘vocal mus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이는 초등, 중등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불리는 양악 계통의 짧은 노래이며, 덕성(德性)의 함양(涵養)과 정조(情操)의 도야(陶冶)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으로 정의된다. 이권희, 『근대일본의 국민국가형성과 교육』 (케포이북스, 2013), 90.

- 3) 1879년 3월에 이사와 슈지(伊澤修二, 1851~1917)는 일본에서의 음악교육 실시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국악 창성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음악전습소설치안’(音樂傳習所設置案)을 문부성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설치된 전습소는 1879년 10월에 ‘음악취조괘’(音樂取調掛)로 승격, 설립되었다. 취조괘는 1885년 2월에 ‘음악취조소’(音樂取調所)로 잠시 개칭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음악취조괘’로 전환되었고, 1887년 10월에 최초의 서양음악 전문학교인 ‘도쿄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가 되었다. 이후 1949년 5월에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1885)와 합병하여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으로 창립되었다. 이권희, 『근대일본의 국민국가형성과 교육』, 115.
- 4) 이사와 슈지는 1874년 일본에 7개의 관립사범학교가 창설되었을 때 22세의 나이로 아이치(愛知)사범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같은 해에 일본 최초의 교육서라 할 수 있는 『교수진법』(教授眞法)을 저술하였다. 1875년에는 문부성 최초의 유학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브릿지워터 사범학교(State Normal School at Bridgewater, Massachusetts)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초등음악교육의 1인자로 유명했던 루터 화이트링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을 만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보스턴을 오가며 그로부터 창가 교육을 별도로 받았다. 키타와에이시 / 강태구 옮김, 『일본음악의 역사』 (민속원, 2013), 358-359.
- 5) 그러나 음악 교육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 더 큰 뜻을 품고 일본으로 왔던 메이슨과, 서양음악의 장점을 취해 새로운 일본음악을 창출하려 했던 이사와 사이에는

메이슨은 음악취조회에 있던 2년 동안 소학교에서 가르칠만한 노래 수집하는 일을 도우며 동시에 도쿄사범학교와 도쿄여자사범학교에서 음악 교사 양성에 힘썼다. 장차 음악교사가 될 학생들은 그로부터 노래뿐만 아니라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의 기본적인 연주법을 배웠다. 메이슨은 노래를 가르칠 때에 피아노보다 바이올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당시 일본인들도 피아노나 오르간보다 가격이 싸고 별도의 연습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올린을 더 이롭다고 여겼다.⁶⁾

메이슨은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부속여자학교에서 10세의 고다 노부를 만났고, 이후 노부는 일본의 근대화 교육 시스템 하에 실시된 서양식 근대음악교육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고다 가문은 대대로 막부(幕府) 시기 쇼군(將軍)의 지배하에 있던 하급관리인 집안이었으나,⁷⁾ 메이지유신 이후 쇼군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시대의 거대한 변화들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가고자 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중시했던 노부의 부모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고, 당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대개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자신의 딸들을 학교에 보냈다. 메이지정부가 학제반포를 통해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어린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음악교육을 둘러싸고 충돌이 빈번했다고 전해진다. 메이슨이 일본으로 초빙된 자체한 경위, 그리고 메이슨과 이사와 슈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권희, 『근대일본의 국민국가형성과 교육』, 116-120참조.

- 6)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Women's History Review* 21/1 (2012), 103. 일본 정부는 서양음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그 어느 서양악기보다 바이올린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차후 고다 노부의 유학 생활에서 주된 전공악기로 바이올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도 관련이 있다.
- 7) 고다(幸田)가는 대대로 오모테보즈(表坊主) 집안이었다. 막부의 가신으로 궁내성(宮內省) 식부직(式部職)의 하급직인 오모테보즈는 격식, 전례, 의례 등이 까다로운 막부의 안내역 혹은 고급 급사정도에 해당하는 그다지 높은 지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이묘(大名)나 장군, 고급관리들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아 당시 위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권윤경, "고다 로한의 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9-10.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⁸⁾

어린 노부의 우수한 학습 능력⁹⁾을 알아차린 메이슨은 노부가 개인적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1882년 일본을 떠나기 전 그녀를 음악취조괘에 추천하였다. 그해 고다 노부는 취조괘에 정규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입학 이후 그녀의 피아노 선생님 중에는 우류 시게코(瓜生繁子, 1862~1928)가 있다.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¹⁰⁾에 포함된 5명의 소녀 가운데 한명이었던 시게코는 미국의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에서 피아노, 오르간, 성악, 음악이론, 음악역사 등을 배웠고, 1881년에 일본에 돌아와 1882년부터 1892년까지 음악취조괘의 선생으로 활동하였다.¹¹⁾

8)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3.

9)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로부터 가부키 춤음악인 나가우타(長唄)를 배웠고, 당시 음악 취조괘의 선생이기도 했던 야마세 쇼인(山勢松韻, 1845~1908)으로부터 일본 전통 현악기인 고토(箏)를 배웠기 때문에, 음악의 배움이 다른 이들에 비해 수월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3.

10) 특명전권대사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의 이름에서 붙여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은 미국, 유럽과의 불평등조약(1858년 체결)을 개정하고 자하는 1차 목적과 함께, 서양의 교육, 과학기술, 경제, 군사, 문화, 사회구조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본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내진 해외 시찰단이다. 메이지정부의 주요 인사들 약 50명과 수행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은 18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서양의 사회제도와 관행을 주의 깊게 시찰했고, 근대산업이 과시하는 경제적 힘과 서양 국민국가들의 교육받은 시민이 가진 사회적 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신정부는 또한 일부 소수의 여성들에게 메이지 유신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사절단에 9세부터 16세까지 5명의 어린 여학생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모범 여성이 되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우류 시게코이다. 앤드루 고든 / 김우영 옮김,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2010), 150-151, 176.

11) 결혼 전 이름은 나가이 시게코(永井繁子). 일본 최초의 피아노 선생이며 해외에서 음악을 전문으로 공부한 최초의 일본인이기도 하다. 그녀가 이와쿠라 사절단에 합류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0살이었다. 워싱턴에서 짧게 머문 후, 코네티컷 뉴헤이븐 지역으로 이동하여 미국역사가 존 애벗 박사(Dr. John S. C. Abbott)의 기독교

고다 노부는 음악취조괘를 다니는 동안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도 중요하게 배웠다. 전술한 바 메이슨의 뜻도 있었지만, 당시 학생 대부분은 장차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악기로 피아노나 오르간보다는 바이올린을 선호하였다. 건반악기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조괘 밖에서는 연습하기가 어려웠고, 또 취조괘 내에서도 학생들 모두가 충분히 연습할 악기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부는 바이올린에 있어서도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였는데, 1884년에는 시험곡으로 크로이처 연습곡 42번(Kreutzer Etude no.42)을 연주하여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를 위한 기본기를 충분히 갖췄음을 증명하기도 했다.¹²⁾ 고다 노부는 1885년 7월에 음악취조괘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이후 학생을 가르치는 동시에 취조괘의 연구과에서 수학을 지속하였다.¹³⁾

메이슨이 일본을 떠난 이후 몇 년 동안 취조괘는 만족할 만한 외국 초빙 교수를 맞이하지 못했다. 1883년 3월에는 독일인 해군 군악대장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가 잠시 근무하였고, 뒤를 이어 네덜란드인 기욤 소브레(Guillaume Sauvlet, 1843~1897)가 1888년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콘서바토리 출신은 아니었으나 지휘자로, 피아니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 교사로 명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노부는 이 두

가정에서 7년을 지내면서 뉴헤이븐 고등학교(New Haven High School)를 졸업하였다. 그간 피아노를 열심히 수학했던 그녀는 이후 뉴욕 포킵시(Poughkeepsie)에 있는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에서 1878년부터 1881년까지 음악을 공부했다. 귀국 후 1882년 3월부터 1892년까지 도쿄음악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쳤다. 당시 음악학교에는 메이슨이 있었는데, 그가 일본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시게코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다고 한다.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4. Sondra Weland Howe, “The Role of Women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2 (1995), 89-91.

12)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4.

13)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論叢』 54 (2013), 192.

명의 외국 초빙사로부터 배우는 동안 음악 선생으로서, 예술가로서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¹⁴⁾

그러던 중 1887년에 “음악을 조사하거나, 학교용 기타 창가 및 음악을 선정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었던 음악취조쾌가 “음악전문교육을 베풀 음악교사 및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한 도쿄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로 승격하면서,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보다 본격적인 서양음악도입에 집중하였다.¹⁵⁾ 그리하여 1888년 11월 일본 정부는 도쿄예술학교의 예술 감독으로 28세의 젊은 루돌프 디트리히(Rudolf Dittrich, 1861~1919)를 영입하였다. 그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로, 빈 음악원(Konservatorium der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in Wien)을 다니던 동안 헬메스베르거(Josef Hellmesberger Jr, 1855~1907)로부터 바이올린을,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프란츠 크렌(Franz Krenn, 1816~1897)로부터 오르간과 화성학, 대위법, 작곡을, 빌헬름 쉐너(Wilhelm Schenner, 1839~1913)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다.¹⁶⁾ 디트리히는 일본이 초빙한 외국인 교사들 중 최초의 본격적인 예술 음악가라 할 수 있다. 서양음악도입 초기에 메이슨을 영입하여 음악의 교육적 측면에 보다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트리히와 같은 전문 예술인을 통해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만큼 음악도 한층 발전하기 바라는 메이지정부의 포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디트리히는 1894년까지 도쿄음악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독주, 실내악, 합창 지휘 등 수십 회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회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서양음악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부는 1889년 유학에 오르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디트리히로부

14)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5.

15)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3.

16)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5.

터 바이올린을 배웠다.¹⁷⁾

취조과 졸업 이후 노부는 연구과에서 수학을 지속하는 동안 전문음악교육을 받은 졸업생 자격으로 ‘메이지여학교창가교육개시’(明治女學校の唱歌教育開始)에 따라 취조과에 주1회 파견 근무하였고, 1886년에는 파견직이 아닌 정식으로 근무하였다. 1887년에는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부속여학교(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附屬女學校)에서도 근무하였다. 이외에도 그녀는 도쿄음악학교에서 창가악보취조(唱歌譜取調), 고등창가교수서(高等唱歌教授書) 및 악보를 교정하는 일 등에 위촉되어 활동하였다.¹⁸⁾

취조과 졸업 이후 노부의 활동 가운데 눈여겨 볼 또 하나는 로쿠메이칸(鹿鳴館)에서의 연주 활동이다. 메이지시대 서양식 사교장이자 외교정책의 중심지로,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1883년 도쿄 히비야에 세워진 로쿠메이칸은¹⁹⁾ 1887년에 서양음악연구회이자 일본 최초의 음악 감상 단체인 ‘일본음악회’(日本音樂會)를 창설하였다.²⁰⁾ 화족(華族)이나²¹⁾ 당대 지식인 등과

17)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3.

18) 막부의 가신으로 하급관리직 일을 하던 노부의 아버지 고다 시게노부(幸田成延)는 1885년 12월 내각제도로의 이행에 따라 보직을 잃게 되고, 3년 후 폐관되었다. 이에 따른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부가 졸업 이후 꾸준히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음이라 짐작할 수 있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2-193.

19) 로쿠메이칸은 ‘일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콘도르(Josiah Conder, 1852~1920)의 설계로 영국 르네상스 양식을 모사한 2층 벽돌 건물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식당과 휴게실을, 그리고 2층에는 연회실을 만들어 각종 연회 및 무도회, 음악회 등을 열었다.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영빈관의 역할, 대외적으로 일본의 선진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적 역할, 화족들의 남녀동반 사교장으로의 역할 등을 수행했던 로쿠메이칸은 1880년대 후반부터 반(反)구미, 반(反)로쿠메이칸의 풍조 속에 갑작스런 민족주의(국수주의)의 붐기로 인하여 1889년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1890년부터 1933년까지 화족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41년에 건물의 노후로 파괴되었다. 전수진·권혁진, “‘녹명관’이 일본 근대문화 수용에 미친 영향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23 (2009), 70-74. 東京オペラシティ文化財団, 『五線譜に描いた夢—日本近代音樂の150年』 (2013), 36.

20) 1887년 ‘일본음악회’가 결성되었을 당시 회장은 후작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 1846~1921), 부회장은 이사와 슈지였다. 東京オペラシティ文化財団, 『五線譜に

함께 군악대대원, 궁내성(宮內省) 식부직(武部職)의 레이진(伶人),²²⁾ 도쿄 음악학교교수, 외국인음악교수 등이 연주자로 참여하였다. 1887년 3월에 열린 ‘제1회 일본음악회 연주회’에서 고다 노부는 당시 그녀의 스승이었던 기욤 소브레의 피아노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였고,²³⁾ 해외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즉 1889년 3월 제7회 연주회까지 개최된 모든 일본음악회 연주회에 출연하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 및 합주 혹은 노래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음악인 방악(邦樂)까지 연주하였다.²⁴⁾

1889년 요슈 치카노부(楊洲周延, 1838~1912)가 그린 <유렵관현악합주의 그림>([그림 1])은²⁵⁾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혼성 합창의 모습 등을 담아내고 있는데, 로쿠메이칸에서 메이지 창가를 합창하는 풍경 정도로 이해되는 이 그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은 아마도 고다 노부를 모델로 하였을 것이라 추정되기도 한다.²⁶⁾ 노부는 피아노 선생이었던 우류 시게코와 함께 로쿠메이칸의 무도회 춤 반주를 위해 참석하거나, 시게코를 대신하여 춤 연습 반주를 담당하기도 했다. 또 1887년에는 일본 최초의 현악4중주단을 결성하여 연주하기도 했는데, 제1바이올린은 고다 노부가, 제2바이올린은 야마다 겐이치로(山田源一郎, 1869~1927, 음

描いた夢—日本近代音楽の150年』, 36.

- 21) 화족은 메이지유신 이후 기존의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1884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귀족 신분을 일컫는다.
- 22) 일본 전통 아악(雅樂)을 계승한 황실 소속의 식부직 악사 레이진은 메이지 유신 이후 황실에서 서양식의 의례가 잦아지게 되자 아악연주 외에 취주악 편성의 서양식 군악대 연주를 병행하였다. 이후 공식 석상에서의 서양음악연주는 그들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장운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 로쿠메이칸(鹿鳴館)의 매개적 역할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종합예술학교, 2013), 3-4.
- 23) 쇼팽의 피아노 작품 녹턴을 피아노와 바이올린 2중주곡으로 편곡한 <정야>(靜夜)를 연주하였다.
- 24)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6.
- 25) 『歐州管弦樂合奏之図』(楊洲周延, 1889),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 26)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6.

악교육가이자 작곡가), 비올라는 노쇼 벤지로우(納所弁次郎, 1865~1936, 음악교육가이자 작곡가), 첼로는 히루마 겐과치(比留間賢八, 1867~1936, 음악교육가이자 만돌린연주자)가 연주했다는 사진 기록이 전해진다. [그림 2]에서²⁷⁾ 양장 차림을 한 18세의 앳된 고다 노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음악회에서서의 활약으로 인해 그녀에게 로쿠메이칸의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지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도쿄음악학교를 대표하는 인재로 당시 매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로쿠메이칸을 배경으로 한 요슈 치카노부의 〈유럽관현악합주의 그림〉



27) 사진은 히루마 겐과치 연구서에 게재되어 있으나, 일본 최초의 현악4중주단이 연주한 곡목이나 이후의 추가적인 연주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ポストン留學,” 196.

사진의 출처는 <http://www.kataoka-mandolin.jp/?cat=22> 검색일: 2018.03.05.

(그림 2) 일본 최초의 현악4중주단에서 제1바이올린을 맡은 고다 노부의 모습



3.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유학생, 미국과 빈 유학기

일본 정부는 서양 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유명 외국인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초빙하였으나, 이후에는 외국인 교수를 대체할 본국의 재원을 양성하기 위해 서양에 유학생을 직접 파견하였다. 이에 고다 노부는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 유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²⁸⁾ 그녀는 1889년 5월 미국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음악원(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에 입학하여 1년간 수학한 후, 1890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해 그곳에서 1895년까지 수학하였다.²⁹⁾

28) 이사와 슈지는 문부성 최초의 유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고다 노부는 문부성 최초의 ‘음악 분야’ 유학생이다.

29) 1889년 4월, 음악계의 첫 번째 문부성 파견 유학생으로 고다 노부가 공식 결정되

일본 정부가 첫 음악 유학생의 유학지로 미국 보스턴의 음악원을 선정한 것은, 도쿄음악학교 교장이었던 이사와 슈지가 서양음악 공부를 보스턴에서 했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전 외국인 초빙 교사였던 메이슨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보스턴에 머무르고 있었던 메이슨은 과거에 자신을 일본 정부에 추천했던 이벤 투르지이(Eben Tourjée, 1834~1891)가 원장으로 있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적극 추천했을 것이다.³⁰⁾ 이에 일본 정부는 서양음악도입과 음악교육 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인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또한 그들이 뿌린 씨앗의 최초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첫 음악유학생을 보스턴으로 우선 보낸 것이라 여겨진다.³¹⁾

음악교육의 주요 중심지였던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은 1867년 2월 이벤 투르지이에 의해 설립된 미국 최초의 사립음악학교로, 노부의 입학 당시 약 2000명의 학생이 재적 중이었고,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성악, 이론 등 다양한 전공의 3년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의 프로그램에 등록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89~1890년 음악원 연보의 재적학생 출신지 리스트에 일본인 1명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음악원의 정식 입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미셔너리 스쿨의 성격이 강했던 음악원의³³⁾ 원장 투르지이는 일본에서의

었다. 그녀가 선발된 계기로 당시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한 디트리히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의 일본 초빙 이전부터 이미 노부의 유학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문부성의 하명서에는 그녀가 바이올린을 전공할 것과, 첫 1년은 보스턴에서 그리고 2년은 오스트리아가 아닌 독일에서 수학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4.

30)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에서 초대 문부대신(文部大臣)을 지낸 정치가이자 교육가였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대리공사(代理公使)로 미국에 재임 중이던 1872년에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 원장 이벤 투르지이를 만나 음악교육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그때 투르지이는 당시 음악원 교원이었던 메이슨을 추천했었다. 이권희, 『근대일본의 국민국가형성과 교육』, 117.

31)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4.

32)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7, 199.

메이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서양음악의 보급뿐만 아니라 ‘음악에 의한 기독교 선교’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노부의 보스턴 유학을 꼽았으며, 일본에서의 최초의 유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유학하게 된 것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³⁴⁾

보스턴 유학 당시 노부는 주전공인 바이올린은 에밀 마르(Emil Mahr, 1851~1914)에게서, 피아노는 카를 펠텐(Carl Faelten, 1846~1925), 화성학은 스테픈 에머리(Stephen Albert Emery, 1841~1891)에게서 배웠다고 전해지나, 그 외 학적부와 같은 재학 중 노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³⁵⁾ 고다 노부는 1년을 미국에서 보낸 뒤, 정부의 계획에 따라 1890년에 유럽으로 옮겨 학업을 지속하였다.³⁶⁾

보스턴 이후 유럽의 유학지는 본래 독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도쿄음악학교에 있던 디트리히의 제안으로 그의 모교인 빈 음악원으로³⁷⁾ 전향했으리라 추측된다. 보스턴에서의 유학은 미국인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의 유학을 위한 준비 단계로도 여겨지며, 그녀는 1년간의 실기와 독일어 준비기간을 더 거친 후 1891년

33) 뉴잉글랜드 음악원 출신의 일본 파견 선교사로는 1888년 일본 나가사키의 갓시여학원(活水女學院, 1879년 창설)에 부임하여 음악을 가르쳤던 안나 빙(Anna L. Bing, 1864~1923)이 있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200, 207.

34)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199-200.

35)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200-201.

36) 1890년 4월, 노부를 가르치던 에밀 마르와 카를 펠텐이 이사와 슈지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의 교육을 1년 만에 종료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스턴의 음악 환경이 독일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노부가 본교를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202-203에 실린 서한 전문 참조.

37)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論叢』 53 (2012), 102. 본래 명칭은 ‘빈악우협회음악원’(Konservatorium der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in Wien)이지만 편의상 ‘빈 음악원’으로 칭한다.

9월에 유럽 음악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빈 음악원에 바이올린 전공으로 정식 입학하였다.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여성에게 그것도 동양에서 온 여성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당시 서양 음악문화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은 드물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도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는 탐탁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³⁸⁾ 실제로 1892, 1893년 빈 음악원의 프로그램 요강에는 “여성의 바이올린 학습은 오직 재능이 매우 뛰어난 경우에만 가능하며, 오케스트라는 불가하다.”(Violinstudien für Frauen nur bei hervorragender Begabung. Kein Orchester)라고 쓰여 있어, 여성의 바이올린 수업을 분명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면서 또한 특별히 동양에서 온 고다 노부는 1895년 졸업 당시 12명의 바이올린 전공 졸업생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이름을 올렸다.³⁹⁾

그녀는 빈에서 수학하는 4년 동안, 전공인 바이올린은 디트리히의 은사이기도 했던 조세프 헬메스베르거(Josef Hellmesberger Jr, 1855~1907)에게서, 부전공인 피아노는 프리데릭 징어(Friederike Singer, 1853~?), 화성학은 그레드너 헤르만(Grädener Hermann, 1844~1929), 대위법 및 작곡은 로버트 푸크스(Robert Fuchs, 1847~1927)에게서 배웠다.⁴⁰⁾

38)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2.

39) 뛰어난 연주 실력과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는 빈 음악원의 전문과정(Ausbildungsschule)에 고다 노부가 합격하기까지, 디트리히와 그의 은사였던 헬메스베르거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의 바이올린 실력이 보스턴에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103.

40) 그녀는 1892년에서 1893년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한 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면서 성악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녀가 빈 음악원에서 성악을 배운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이탈리아 가곡을 원어로 부르거나 성악 발성을 자주 구사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휴학 기간 동안 밀라노에서 성악을 공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平高典子, “幸田延の

노부는 이외에도 학교 밖 사적 공간에서 예술인 혹은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럽문화를 적극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특히 부유한 상인의 딸이면서 유명한 출판업자의 부인이기도 했던 로자 폰 게롤트(Rosa von Gerold, 1829~1907) 부인과 중요한 친분을 쌓았다. 저명한 예술인, 지식인들이 모이는 ‘살롱’(salon)을 주재하면서⁴²⁾ 유럽 각지를 여행하고 기행문을 출판하는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던 그녀는 일찍이 1873년 빈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출품물들을 본 이후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에서 건너 온 노부의 빈 생활을 크게 도왔다. 게롤트 부인은 노부에게 미국에서 구입한 독일산 바이올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산 명기 아마티(Amati) 바이올린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또 노부가 빈의 음악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부인이 이끌던 아마추어 합창단에 노부를 영입시키기도 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크게 유행했었고, 빈에서도 다수의 합창단이나 합창 협회가 설립되던 터였다. 이들 합창단은 아마추어라 해도 거의 프로와 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부인이 이끌

ウィーン留學,” 103-107.

- 41) 사실 고다 노부가 머물렀던 1890년부터 1895년까지의 빈에서는 20세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세기말(fin de siècle) 빈’, ‘빈모더니즘’이라는 예술 문화적, 정신사적 조류가 태동하고 있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 기존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도전, 심미적 쾌락주의, 데카당스 등의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문학계에서는 아르투어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1862~1931), 후고 폰 호프만슈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 미술계에서는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 등이 활동하였다. 음악계에서는 20세기 초의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의 새로운 예술 풍조와 달리 빈 음악원은 전통을 중시하며 보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고, 서양의 고전적 가치를 가진 우아한 예술음악을 배우고자 했던 노부가 ‘세기말 빈’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지 알 수 없다.
- 42) 그녀의 살롱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철학자 포이어바흐(Ludwig Andreas von Feuerbach, 1804~1872, 역사학자 시켈(Theodor von Sickel, 1826~1908),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 정치인 바서만(Friedrich Daniel Bassermann, 1811~1855) 등이 있다. https://www.wien.gv.at/wiki/index.php?title=Rosa_Gerold 검색일: 2018.04.01.

던 합창단도 그러하였으리라 짐작되는데 노부는 합창단에서 알토를 맡아 활동하였다고 전해진다. 노부는 1907년 게를트 부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후의(厚意)에 두고두고 감사했다. 서신의 일부는 오스트리아국립도서관(Austrian National Library)에 일부 소장되어 있다.⁴³⁾

노부의 빈 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유의미한 교외 활동은 빈 여성음악교사협회(Verein der Musiklehrerinnen) 멤버들과의 교류이다. 이 협회는 빈 음악원 출신의 여성음악교육가가 1886년에 창립한 단체로, 여성 전문음악가들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휴가보험 등 사회 보장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남성음악가 수준만큼의 보수를 높이기도 하고, 여성연주자의 음악회도 적극 주최하는 등 여성음악가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피아노나 성악 정도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의 연주활동을 바이올린이나 첼로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에도 기여했다. 노부의 빈 음악원 재학 당시 피아노 선생이었던 프레데릭 징어와, 노부와 친분이 있던 피아니스트 마가렛 데메리우스(Margaret Demelius)가 이 협회의 멤버였다.⁴⁴⁾ 노부가 이 협회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성음악가들이 그들 간 연대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활동과 여성음악가의 지위 향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리라 여겨진다.

43) 노부는 게를트 부인 외에도 아네트 폰 비브노(Annette von Vivenot), 조세피네 폰 크노르(Josefine von Freiherr Knorr)와 같은 빈의 상류층 여성들과 교류하는 등 상당히 사교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성 간 교류는 훗날 노부가 일본에서 신분이 높고 부유한 가정의 딸들을 위해 피아노 레슨을 하거나 개인 연주회를 운영했던 것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6-107.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112-113.

44)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110.

4. 근대 일본 ‘여성음악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일본 음악계는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 유학생이었던 고다 노부의 귀국을 고대하였을 것이고, 그녀는 1895년 귀국한 그해 12월에 바로 모교인 고등 사범학교부속음악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서양에서 직접 음악을 배우고 돌아온 서양음악의 권위자로서, 1894년 사직한 디트리히의 후임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녀는 연주자로,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그녀를 향한 반발과 배척으로 당시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그녀는 학교나 공공연주회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음악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고다 노부는 도쿄음악학교 교수로, 일본 최초의 서양음악작곡가로,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의 음악 선생 및 서양음악문화전파자로, ‘여성음악가’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구성해 나갔다.

1) 도쿄음악학교 교수

1895년 7월에 빈 음악원을 졸업 후 11월에 일본으로 돌아온 노부는 그 다음 해에 개최한 귀국연주회에서, 그녀가 문부성의 첫 번째 음악 유학생으로 받아온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 6년간 서양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녀는 이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과, 하이든 현악4중주의 작품 가운데 제1바이올린 파트를 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가곡을 부르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솔로곡을 반주하기도 하고, 바흐의 푸가를 몇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곡으로 직접 편곡하여 연주하는 등 매우 다양한 악기와 작품을 구성하였다. 그녀의 연주 실력이 얼마나 완벽했을 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연주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가 매우 다재다능한 음악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⁵⁾

노부는 귀국하자마자 고등사범학교부속음악학교(高等師範學校附屬音樂學校)의 교수에 임명되어 1909년 휴직하기 이전까지 음악교육자로, 연주자로 활발히 활약했다.⁴⁶⁾ 그녀는 학교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 그리고 성악 등을 가르쳤으며, 그녀의 학생 가운데에는 <황성의 달>(荒城の月) 등 일본인이 애창하는 가곡을 여럿 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타키 렌타로(瀧廉太郎, 1879~1903)와, 훗날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의 초초상(Cio-Cio-San) 배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성악가 미우라 타마키(三浦環, 1884~1946) 등이 있다.⁴⁷⁾

1899년 고등사범학교부속음악학교가 다시 도쿄음악학교로 개칭 한 후 부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융커(August Junker, 1868~1944)는⁴⁸⁾ 학교 소속의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구성하였고, 그들의 사진은 일본 서양음악 역사상 중요한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19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인 [그림 3]에서⁴⁹⁾ 외국인 남성 융커 옆에 기모노를 입고 악기를 쥐고

45)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6.

46) 음악취조과는 1887년에 도쿄음악학교로 승격되었으나, 1893년 고등사범학교부속음악학교(高等師範學校附屬音樂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899년에 다시 도쿄음악학교가 되었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芸術研究』 7 (2015), 14, 24. 음악취조과가 도쿄음악학교로 명칭 변경되기까지의 과정은 각주3 참고.

47) 타키 렌타로는 1901년에, 미우라 타마키는 1904년에 각각 도쿄음악학교를 졸업했다.

48) 아우구스트 융커는 디트리히와 함께 일본의 서양음악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독일인 바이올린연주자다. 조세프 요아힘(Joseph Joachim)의 제자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콘서트마스터를 거쳐 시카고 심포니에서 비올라 수석주자로 활동하였다. 1898년에 첫 번째 일본 연주회를 가진 이후 1899년에 도쿄음악학교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전 그의 오케스트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관현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 오케스트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던 그는 1912년까지 도쿄음악학교에서 근무 후 독일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1934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무사시노음악학교(武蔵野音樂學校)에서 만년까지 가르쳤다.

[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Junker_\(Musiker\)](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Junker_(Musiker)) 검색일: 2018.03.21.

49) 사진의 출처는 東京オペラシティ文化財団, 『五線譜に描いた夢—日本近代音楽の150年』, 36. <http://www.oldtokyo.com/orchestra-chorus-of-the-tokyo-academy-of-music->

앉아 있는 두 여성은 고다 노부(좌)와 그녀의 여동생 안도 고(우)이다. 이외에도 고다 자매는 용커와 혹은 다른 외국인 교수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를 자주 가졌는데, 안도 고는 바이올린을, 고다 노부는 비올라 파트를 주로 맡아 연주하였다고 한다.⁵⁰⁾ 그녀는 교수직에 있는 동안에도 개인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특히 어릴 적부터 꾸준히 공부해온 피아노에 애착이 있어, 당시 도쿄제국대학에 서양철학 교수로 초빙되었으나 도쿄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던 러시아 피아니스트 라파엘 폰 케버(Raphael von Koeber, 1848~1923)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기도 했다.⁵¹⁾

도쿄음악학교 교수로서 그 누구보다 정력적이었던 고다 노부의 음악 활동은 1900년을 전후로 가장 정점을 이루었고, 그녀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⁵²⁾

tokyo-c-1910/ 검색일: 2018.03.21.

50)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7.

51)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6.

52)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8. 노부가 교수직을 사임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논함.

(그림 3) 도쿄음악학교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사진(1900년대로 추정)
지휘는 아우구스트 융커(August Junker), 앞쪽 중앙에 고다 자매



2) 일본 최초의 서양음악작곡가

단언컨대, 고다 노부는 일본의 서양음악 역사에서 연주자, 교육자로서의 입지만큼 작곡가로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의례용으로 작곡된 노래이거나 합창곡이지만, 음악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작품은 그녀가 1895년 빈 유학 시절과 귀국 후 1897년에 쓴 두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이다. 이 두 작품은 서양음악양식으로 작곡된 일본 최초의 기악작품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먼저 작곡된 것으로 보이는 3악장 구성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내림마장조>는 노부의 유품으로 후손에게 전해졌을 때⁵³⁾ 제목도,

53) 고다 노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살았으므로 자녀가 없다. 그녀의 유품은 유족인 고다 세이키(幸田成貴) 아래 악보와 일기 등 몇 가지가 남아 있다. 平高典子, “幸

서명도, 그리고 명확한 악기 지정도 없었지만 2악장 끝에 “Wien, 95”라고 기입된 것 그리고 솔로 파트의 연주 기법이나 음역 등을 토대로, 1895년에 작곡(1897년 발표)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1악장은 소나타형식의 내림마장조(4/4박자), 2악장은 아다지오로 우아한 트리오 형식의 사장조(2/4박자), 3악장은 알레그로의 경쾌한 론도 형식의 내림마장조(6/8박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악장과 2악장은 빈 음악원 재학 중 그녀의 작곡 선생이었던 로버트 폭스 문하에서 쓰인 습작으로 보이고, 마지막 3악장은 일본 귀국 후 작곡되었으나 후반부 피아노 파트 일부가 소실되어 미완의 상태로 전해졌다. 화성의 사용, 전조의 처리 등이 단조롭고 소품적인 성격을 가진 이 소나타는 고전적 전통을 가진 우아한 빈의 분위기를 담아내며 “아마추어의 가정 음악을 위한 곡(Laienhausmusik)으로 적합”해 보인다.⁵⁴⁾

1897년 일본에서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는 단악장 구성으로 “Sonata für Violin und Klavier von Nobu Koda”라는 작품제목을 명시함으로써 연주 악기를 분명히 지정하고 있다. 4/4박자, 모데라토(moderato)의 이 곡도 마지막 몇 마디가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라단조의 애절함인 담긴 낭만 소나타로서, 고전적 스타일이 강하게 느껴지던 이전 소나타보다 모티브의 전개가 자유롭고 완성도가 높다.⁵⁵⁾ 『요가쿠: 20세기 일본 음악』(Yogaku: Japanese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2002)를 저술한 루치아나 갈리아노(Luciana Galliano)는 고다 노부의 작품을 “후기 낭만 독일 음악을 놀라울 정도의 성숙함과 완숙미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며, 그녀가 “아름다운 선율 프레이즈와 화성 구조를 잘 만들어냈으며, 야마다 고사쿠에 비등할 만한 전조의 테크닉도

田延のウィーン留學,” 114.

54)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114. 平高典子, “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 『芸術研究』 9 (2017), 3.

55)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114. 平高典子, “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 10.

구사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⁵⁶⁾

같은 시기의 말러(Gustav Mahler, 1860~1911)가 조성을 점차 확장시켜 대규모 교향곡을 작곡하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가 그만의 음악언어로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에 몰두하던 때에, 고다 노부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낡은 전통의 답습과 같은 작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서양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시점의 일본에서 작곡된 이 작품들은 서양 악기를 위해 쓴 첫 번째 기악음악으로, 혹은 소나타형식을 사용하여 작곡된 첫 번째 작품으로 일본 서양 음악역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음악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다 노부의 두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작곡가 이케베 신이치로(池辺晋一郎, 1943~)가 미완 부분을 보완하고 편집하여, 그녀 사후 60년인 2006년에 일본 ‘전음악보출판사’(全音楽譜出版社)에서 《Two Sonatas for Violin and Piano》로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고다 노부는 교육용 창가, 교가, 가곡, 합창곡, 피아노곡, 봉축 음악 등 다수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고다 노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히라타카 노리코(平高典子)는 자신의 논문 “작곡가로서의 고다 노부”(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에서, 최근 일본에서 노부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그녀가 작곡계의 선구자로 그 인지도가 올랐다고 평하며, 유족에 의해 공개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작곡 연대가 판명된 작품과 불명한 작품으로 구분하여 간단한 해설과 함께 소개한 바 있다.⁵⁷⁾ 다음 [표 1]은 노리코의 논문에서 언급된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56) Luciana Galliano, *Yogaku: Japanese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2002), 40.

57) 平高典子, “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 1-14.

[표 1] 고다 노부가 작곡한 작품의 목록

작품 연대가 판명된 작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내림마장조〉 (1895작곡, 1897발표)
창가 〈今は學校後(あと)に見て〉 (1901)
혼성4부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大禮奉祝曲〉 (1915)
가곡 〈藤のゆかり (六月廿五日奉祝の歌)〉 (1915)
교가 〈神奈川縣立高等女學校・女子師範學校(現横浜平沼高等學校) 校歌〉 (1916)
가곡 〈常若の花 (3月6日奉祝の歌)〉 (1929)
여성3부합창곡 〈蘆間舟〉 (1931)
혼성4부합창곡 〈天〉 (1931)
작품 연대가 불명한 작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가곡 〈今日の幸〉
피아노 연탄소곡 〈連彈小曲〉
교습용 피아노곡 〈小變奏曲〉

고다 노부는 1910년 도쿄음악학교 교수직 사임 이후 다이쇼 천황비 등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황족의 음악선생으로 일본 황실과 친분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다이쇼 천황 즉위식이 열린 1915년에⁵⁸⁾ 황실을 위한 작품을 몇 곡 발표하였다. 그 중 천황 즉위의 대례를 위해 작곡한 ‘혼성4부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례봉축곡>(大禮奉祝曲)’은 그녀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규모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악보가 전해지는 유일한 오케스트라 작품이다. 4악장 구성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롬본, 튜바, 팀파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

58) 다이쇼 천황이 재위한 것은 1912년 7월이지만, 천황 즉위식이 거행된 것은 1915년 11월 10일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9D%B4%EC%87%BC_%EC%B2%9C%ED%99%A9 검색일: 2018.04.02.

며, 궁내성에 헌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가곡 <등나무의 연고, 유월이십오일봉축노래>(藤のゆかり, 六月廿五日奉祝の歌)는 다이쇼 천황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되었고, <카나가와현립고등여학교·여자사범학교교가>(神奈川県立高等女學校·女子師範學校校歌)는 다이쇼 천황 즉위 다음 해인 1916년에 천황의 아들 히로히토(쇼와 천황)의 입태자예식을 봉축하는 행사의 하나로 학교 측에서 노부에게 교가 작곡을 의뢰하여 작곡된 것이다. 이후 1929년에 작곡된 가곡 <영원한 젊음의 꽃, 삼월육일봉축노래>(常若の花, 3月6日奉祝の歌)는 쇼와 천황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곡으로 작곡되었다. 1931년에 작곡된 두 개의 합창곡 <갈대사이의 배>(蘆間舟)와 <하늘>(天)은 그해 6월 도쿄음악학교가 개최한 고다 노부의 환갑 기념행사에서 불렸다.⁵⁹⁾

그녀가 전문 작곡가로 활동한 것도,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남긴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에 이르기까지 작곡 활동을 꾸준히 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곡된 두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명실 공히 일본에서 작곡된 첫 번째 기악곡들로 그 위상이 높으며, 곡이 갖는 고전적 형식미와 낭만주의적 색채는 당시 일본인에게는 흔치 않았던 음악적 취향과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잘 보여준다. 그녀가 작곡한 몇 곡의 창가들은 음악교육자로서의 면모도 잘 나타낸다. 또한 황실이나 의례를 위한 곡을 여럿 작곡한 가운데 특히 ‘여성’과 관련한 작품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곡이나 여학교를 위한 교가, 여성3부합창곡 등을 쓴 것은 고다 노부가 여성들 간 네트워크를 중시하였음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연대가 불분명한 몇 곡의 피아노 소품들은 교수직 사임 이후 사적 공간에서의 피아노 레슨과 연주를 염두에 두고, 여성의 가정음악회를 위한 것이거나 교습용으로 작곡된 것으로 보인다.⁶⁰⁾

59) 平高典子, “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 4-9참조.

60) 후에 자세히 논하겠으나, 일찍이 빈 유학 동안 여성이 이끄는 유럽의 살롱 문화도

3) 고다 노부를 향한 일본 언론의 비방과 배척

1908년 7월과 8월 『일본신문』(やまと新聞)에는 도쿄음악학교를 뒤흔드는 기사가 게재됐다. 가든파티나 수학여행에서 남녀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이며 학교가 점차 타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⁶¹⁾ 언론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어 그 해 9월 기사에는 도쿄음악학교의 교수인 고다 노부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운운하며 학교 타락의 원인을 그녀에게로 몰아 그녀의 퇴진론을 전개하는 내용이 실렸다.

고다 노부 여사는 본교에 적지 않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술가로서 존경 받을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인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다. 교육자 양성이 중심인 본교에 고다 노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득 될 것도 없다. 여사가 물러나면 본교 아니 우리 음악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다.⁶²⁾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9월에 연재한 “괴로울 음악계”(憂ふ可き音楽界)라는 기사에서 더 강한 논조로 노부를 비방하면서, “기술면에 서나 수적인 면에서 남자 교사만큼 우수한 여자교사들에게 따르는 폐풍(弊

경험한 바 있고, 빈여성음악교사협회를 통해 여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노부는 일본에서 서양음악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가기 위해 여성 전문음악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61) <http://rasensuisha.colog-nifty.com/kingetsureikou/2014/06/index.html>참고.

검색일: 2018.04.01.

62) 『幸田延子女史は本校に少なからざる功勞のある人で又芸術家として尊敬すべき天才を有している、しかし教育家としての品性人格は絶対に非認せざるを得ない、教育家養成主義たる本校に斯の如き人を置くのは害あつて益がなからう、女史が退けば本校否我音楽界が如何に發展するかは言を俟たずして明である』、『やまと新聞』明治41年9月、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員會 1987: 568.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4재인용.

風)은, 항상 하늘 아래 악계 암류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고,⁶³⁾ “아아 엄연한 이 대(大) 예술을 부녀자의 손에만 맡기고 남자는 공수방관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나라의 치욕과도 같지 아니한가.”라며⁶⁴⁾ 여자교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에서 외국인 교수에 대한 풍기문란을 꼬집어 쓰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 중심에도 고다를 언급하였다. “용커씨에 이르러서는 고상하고 우아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품성이 비열한 사람이다. (중략) 이 사람의 고다 여사와의 관계 운운 또는 매독 운운은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이 기사는 당시 도쿄음악학교에 재직 중이던 아우구스트 용커와 노부 간의 불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여 가십거리로 만들며 노부를 부정한 여성으로 몰아갔다.⁶⁵⁾ 1909년 『제국문학』에 실린 “견식이 없는 음악가”(不見識なる音樂家) 기사에서는 노부를 가리켜 “무책임”(無責任), “한심한”(情けない), “무능”(無能)이라는 표현으로 그녀를 강하게 비방하였다.⁶⁶⁾

이런 무자비한 언론의 공격에 고다 노부는 어쩔 수 없이 1909년 9월 휴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도쿄음악학교 측은 언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교수직을 휴직한 그 해에

63) 「技に於て數に於て男教師に優る女教師に伴う弊風は、常に天下樂界暗流の發源地となれる」 <http://rasensuisha.cocolog-nifty.com/kingetsureikou/2014/06/index.html>참고. 검색일: 2018.04.01.

64) 「ああ尊きこの大芸術を婦女子の手にのみ委して、男子拱手傍觀して沈黙すると云ふは由由しき國辱にあらずや」, 『東京朝日新聞』明治41年 9月、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1987: 569.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樂事情視察,” 14재인용.

65) 「ユンケル氏に至っては高雅なる芸術に携われる人としも思えぬほど品性の下劣な人なり(中略)この人の幸田女史との關係云々または梅毒云々は別問題にしても(後略)」, 『東京朝日新聞』明治41年 9月、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1987: 570.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樂事情視察,” 14재인용.

66) 『帝國文學』第15卷2号、明治42年 2月、引用は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1987: 572-574.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樂事情視察,” 14재인용.

바로 그녀의 후임으로 독일인 루돌프 에르네스트 로이터(Rudolph Ernest Reuter, 1888~?)를 초빙한 바였다. 그녀가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든 학교의 처사는 고다 노부의 휴직이 자발적이기보다는 학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⁶⁷⁾ 그녀가 휴직하기까지 언론도 언론이지만 학교 내의 중진이었던 고다 노부에 대한 남성 교원의 반감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7년 학교장으로 부임했던 유하라 겐이치(湯原元一, 1863~1931)는 언론의 분위기를 업고 당시 학교의 요직에 있던 고다의 휴직과 사직을 적극 추진했다.⁶⁸⁾ 결국 그녀는 1911년 9월에 공식적으로 도쿄음악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고다 노부는 귀국 이후 교육자로, 연주자로, 그리고 서양음악의 권위자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나, 당시 일본의 남성 중심 지식인 사회는 그러한 고다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언론은 그밖에도 그녀를 ‘우에노의 여왕’ 혹은 ‘독재자’라 비방하며 그녀에 대한 반발을 적극 기사화 했고, ‘몹시 불쾌’하고 ‘여성적이지 못한’ 여성이라 낙인찍으며 그녀를 도쿄음악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⁶⁹⁾

“서양 여성은 재주에 능숙하지만 일본 여성은 덕(德)이 있다.”⁷⁰⁾ 여기던 당대의 인식 속에, 서양에서 교육받고 서양 문화를 적극 수용한 고다 노부는 재주는 있으나 덕 없는 일본 여성이었고, 따라서 그녀의 교수로서의 자질은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더욱이 외국인 남성 연주자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연주활동을 펼치던 그녀는 서양의 악풍에 물든 문란한 여성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일본 사회는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67)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18.

68)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5.

69) Sondra Weland Howe, “The Role of Women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96.

70) 오고시 아이코 / 전성곤 옮김,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09), 59.

4) 유럽음악사정 시찰 여행

고다 노부는 도쿄음악학교를 휴직한 이후 1909년 11월부터 1910년 7월 까지 유럽에 머물며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음악 상황을 시찰(視察)하는 여행을 다녔다. 단순한 여행이기보다는 다양한 음악회를 보고, 다수의 음악가들과 교류하거나 자신이 직접 연주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음악 학교와 음악 수업들을 참관하거나 직접 레슨을 받는 등 서구 유럽의 음악 문화와 음악 교육의 현장을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노부가 남긴 일기 글을 통해 그녀의 유럽여행의 여정과 특이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⁷¹⁾

[표 2] 고다 노부의 유럽여행 여정

1차 베를린 방문 (1909.11.03.~ 1910.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필하모닉 등의 오케스트라 연주, 다양한 실내악 연주, 바이올린·첼로·피아노·오르간 등의 독주, 성악연주회 및 오페라 감상 - 작곡가 막스 레거(Johann Baptist Joseph Maximilian Reger, 1873~1916),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샤르벤카(Franz Xaver Scharwenka, 1850~1924)등의 작품 감상 - 베를린음악대학, 샤르벤카음악원, 슈테른음악원 등 학교 관계 음악회 감상⁷²⁾ - 베를린 필하모닉 합창단에 참여하여 다수의 합창연주에 참여하거나,⁷³⁾ 다수의 실내악 연주회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직접 연주함 - 달크로즈 강습회 참여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개인레슨을 받음
---	---

71) 유럽시찰여행 기간 동안 노부의 활동은 유족에게 남겨진 그녀의 일기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진다. 일기는 타키 케이코(瀧井敬子)와 히라타 노리코(平高典子)에 의해 해설이 덧붙여져 지난 2012년에 『고다 노부의 ‘유럽 체류 일기’』(『幸田延の“滯歐日記”』)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노부의 일기를 정리한 히라타 노리코의 논문 “고다노부의 유럽음악사정시찰”(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을 참조하였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3-27.

<p>빈 방문 (1910.03.24.~ 1910.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음악학교 교수였던 디트리히, 노부의 빈 음악원 시절 스승인 징어와 폭스, '빈여성음악교사협회'의 멤버 등을 만남 - 빈 소년합창단 연주회, 다수의 오페라와 빈 특유의 오페레타, '빈여성음악교사협회' 주체의 여성 현악4중주 등을 감상 - 빈 음악원의 허가를 받아 학교 수업 및 레슨 청강
<p>2차 베를린 방문⁷⁴⁾ (1910.04.17.~ 1910.06.15.)</p>	<p>(전반적으로 음악회 감상이나 연주회 참여 횟수가 줄어들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연주회보다는 베를린 소재의 학교 주최 연주회 감상 - 바그너, 요한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의 오페라 감상 - 'IBACH 피아노 콩쿠르' 등 유명 콩쿠르 참관 - 베를린음악대학, 슈테른음악원, 모데른음악원⁷⁵⁾ 등에서 레슨 청강 - 성악 개인레슨 받음
<p>파리 방문 (1910.06.15.~ 1910.07.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음악원에서⁷⁶⁾ 피아노·성악 레슨 청강 및 공개졸업시험 참관 -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 축제 참여 - 베를리오즈, 쥘 마스네, 베르디의 오페라 감상
<p>런던 방문 (1910.07.10.~ 1910.07.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영박람회(日英博覽會, 1910.05.14.~10.29) 방문⁷⁷⁾ - 푸치니,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및 오페레타 감상 - 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 견학

72) 각 학교기관의 원명은 다음과 같다. Königliche Akademische Hochschule für Musik zu Berlin, das Conservatorium der Musik Klindworth Scharwenka, das Sternsche Conservatorium der Musik.

73) 특히 12월 20일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연주에 참여한 고다 노부는 베토벤의 <합창>을 부른 최초의 일본인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6.

74) 히라타 노리코에 의하면, 고다 노부가 두 번째로 베를린에 방문하였을 때 일본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편지 이후 그녀가 몹시 우울해했으며 일기의 톤이 어두워진 것으로 보아, 그녀의 귀국 이후 거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으리라 추측된다고 하였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7-19.

75) 모데른 음악원의 원명은 Moderns Conservatorium der Musik.

76) 파리 음악원의 원명은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77) 이 박람회에서 일본군악대를 이끌고 방영한 육군군악대장 나가이 켄시(永井建子), 바이올린 제작자 스즈키 마사키치(鈴木政吉), 도쿄음악학교 초빙교수인 헤르만 하이드리히(Hermann Heydrich) 등을 만났다.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20-21.

이처럼 다양한 음악 활동 외에도 유럽 체류기간 동안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성 음악가들과의 교류였다. 이미 빈 유학 시절 ‘빈여성음악교사협회’를 통해 여성음악가들 간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녀는 두 번의 베를린 여행과 빈, 파리 등에서 다양한 여성음악인들과의 교류를 가졌다. 특히 비교적 오랫동안 체류했던 베를린에서 노부는 많은 여성음악인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레슨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히라타 노리코에 의하면, 노부는 베를린 체류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마틸데 엘런(Mathilde Ellon) 부인으로부터 몇몇의 여성음악가들을 소개 받았고, 당시 베를린에서 유명했던 여성음악가들을 다수 만났다고 한다. 성악가 로라 베틀(Lola Beeth, 1861~1940),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메리 wurm(Mary Wurm, 1860~1938), 클라라 슈만의 동생이면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마리 비크(Marie Wieck, 1832~1916),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민요를 노래했던 메리 베르크(Marie Berg, 1840~1920) 등이 노부와 친분을 가졌다.⁷⁸⁾

빈에서는 한 달이 채 못 되는 체류기간 동안 유학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던 ‘빈여성음악교사협회’의 멤버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도 적극 방문하였다. 징어와 데메리우스 등과 재회했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멤버이자 당시로는 매우 귀한 여성 첼리스트 조세핀 도나트(Josefine Donat, 1867~?) 등을 만났다. 또한 유학 시절에도 그러했듯이 크링스포어(Kringspohr) 남작부인, 홀바인스베르크(Holbein von Holbeinsberg) 부인 등 빈의 상류층 여성들과의 친분도 가졌다.⁷⁹⁾ 파리 체류 동안에는 상류층 부인이 주재하는 예술모임인 ‘살롱’에 초청되기도 했는데, 당시 소프라노로 활동하기도 했던 아니타 키넨(Anita Kinen)의 살롱에서 몇 차례 성악 레슨을 받기도 하고, 프랑스의 악기제조사인 ‘에라르’(Érard)의 사장을 소개받아 파리 체류 동안 도움을 받기도 했다.⁸⁰⁾

78)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6, 19.

79)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17.

여성 간 교류 및 연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성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의 입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고다 노부는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활동 공간을 적극 만들어나갔다.

5) 고다 노부의 사적 음악활동

유럽 여행 동안 그녀의 다양한 경험은 귀국 후 그녀의 음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911년 9월 도쿄음악학교 교수직을 강제 사임한 이후, 비록 제도권 내에서의 공공 음악 활동이나 전문적인 음악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그녀만의 방식으로 피아노 교습소를 열고, ‘가정음악회’를 장려하거나, 개인 연주회를 운영하는 등 그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적 음악공간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하고 감상하며 서양음악문화가 일본에 더욱 깊숙이 이식될 수 있도록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고다 노부는 1911년 ‘심성회(審聲會)’라는 민간 음악 교습소를 열어 피아노를 가르쳤다.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부유한 상위계층의 딸들이나 황후와 같은 황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르쳤으며,⁸¹⁾ 전문연주자를 양성하기 보다는 교양 있는 아마추어연주자를 위해 개인 교습과 더불어 학생들의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가졌다.⁸²⁾ 그녀의 유학시절 주전공 악기는 바이올린이었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후반기에 그녀가 선택한 악기는 피아노였다. 공식 석상에서 벗어나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에 주력한 것이다. 그녀가 바이올린이 아닌 피아노를 선택한 이유가 당시 일본에서 전문 바이올린연주자

80)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20.

81) 노부는 황실의 음악선생으로서 황후나 황손들에게 피아노를 레슨하기도 하고, 전술했듯이 황실 관련 의례용 음악을 다수 작곡하기도 했다. 앞의 [표 1]과 설명 참조.

82) 平高典子,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22.

로 활동하는 동생 안도 고를 배려했기 때문인지, 혹은 그녀가 정부의 요구에 의해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그녀 개인적으로는 귀국 이후에도 꾸준히 레슨을 받을 정도로 피아노를 더 선호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서양의 음악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일본에 적극 이식시키려 했던 바, 당시 유럽에서 여성들이 교양을 위해 혹은 아마추어연주자로 주로 다루던 악기가 피아노였던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다른 악기에 비해 여성에게 어울리는 악기이면서 교양 있는 가정 음악의 상징이 되는 악기인 피아노는 고다 노부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확률이 크다.

피아노와 관련하여 그녀가 염두에 두었던 또 하나는 일본의 상위계층 가정에 서양식 ‘가정음악회’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고다 노부는 유학기간이나 유럽시찰여행기간에 상류계층의 가정에 초대되어 그들의 ‘가정음악회’를 접하였었다. 특히 베를린에 머물렀던 동안의 일기 중에는, 그곳의 가정에는 대부분 피아노가 있으며 종종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다른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기도 하는데, 오후 5시의 티타임이 되면 여성들이 모여 서로 즐겁게 음악을 연주하더라고 적어두었다. 그녀는 유럽의 가정처럼 일본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같이 음악 연주하기를 적극 장려하였는데, 만일 부인이 피아노나 고토를 연주한다면 남편은 플루트를 연주하고 시어머니는 샴시센을 연주하라든가, 또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딸들이 악기를 연주하라는 식의 지침을 주기도 했다.⁸³⁾

고다 노부는 1918년에 그녀의 개인 연주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베토벤의 흉상으로 장식한, 유럽의 살롱을 연상시키는 이 연주홀에서 그녀는 직접 연주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연주자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 연주자들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엘먼(Misha

83)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8.

Elman, 1891~1967)은 1921년 일본 투어 연주 중 이곳에서 공연을 했고, 그 밖에 하이페츠(Jascha Heifetz, 1901~1987) 등 다른 유명 연주자들도 일본 방문 중에 노부의 연주홀에서 공연을 가졌다.⁸⁴⁾ [그림 4]는⁸⁵⁾ 외국 연주자들과 함께 피아노5중주를 연주하는 고다 노부의 모습이며, [그림 5]는⁸⁶⁾ 연주홀에 있는 그랜드피아노 앞에서 찍은 그녀의 모습이다.

(그림 4) 고다 노부의 개인 연주홀에서의 실내악 연주
우측에 기모노를 입고 비올라를 들고 앉아 있는 여성이 고다 노부, 좌측은 안도 고



84) Margaret Mehl,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108.

85) 사진의 출처는 <http://www.ne.jp/asahi/sayuri/home/doyobook/doyo00taki.htm>
검색일: 2018.04.03.

86) 사진의 출처는 <http://www.news-pj.net/npj/kobayashi-midori/20090309.html>
검색일: 2018.04.03.

〔그림 5〕 쇼와시대 초기의 고다 노부



그녀의 사적 공간에서의 치밀한 음악활동은 국가 주도 하에 서양음악을 도입하고 발전시켰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음악을 일상 속에 향유할 수 있도록 서양음악문화를 적극 구성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다 노부는 그간의 예술문화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1937년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제국예술원(帝國藝術院)의 회원이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녀의 공로를 공식적인 인정한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을 대신하여,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의 서양음악도입 과정에 막중한 임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구체적으로는 근대 일본 남성지식인이 규정한 ‘여성상’을 벗어

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경위와, 이후의 그녀의 행보에 대해 좀 더 논하고자 한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문부대신을 역임한 기쿠치 다이로쿠(菊池大麓, 1855~1917)는 일본 공교육의 장에서 여성상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1902년 1월에 실시한 대일본부인교육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⁸⁷⁾

양처현모(良妻賢母)는 여자의 천직이다. 그리하여 가정주부는 매우 귀중한 직분이다. 선량한 국민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그 근원인 가정이 선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량한 가정이 많은 나라는 번창하고 불량한 가정이 많은 나라는 쇠한다. 즉 가정은 일국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실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다.

또 같은 해 5월 전국고등여학교교장회의 연설에서 그가 그린 여성상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자의 직무라는 것은 독립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양처현모가 되는 것이 장래 대다수의 일이기 때문에 여자교육이라는 것은 이 임무에 적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교육을 중시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남녀사이의 평등이나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의식 자각에 있기보다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녀사이의 차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양처현모’라는 성역할로 규정해버림에 있다. 근대 일본의 남성중심사회가 ‘가정’을 국가의 기초단위로 상정한 이후, 여성에게는

87) 이하 두 인용문의 출처는 가토 치카코 / 이은주 옮김, “제국 일본에서의 규범적 여성상의 형성,”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남편을 내조하는 부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이 강요되었고, 여성교육의 목적이나 여성의 사회적 책임 또한 모두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였다. 여성교육은 철저히 남성중심주의 국가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⁸⁸⁾

여성이 가사에 종사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귀중한 직분이며, 독립하여 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직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던 때에, 이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 고다 노부는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헌신해야 할 가정이 없었고, 내조할 남편도 양육할 자녀도 없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남성에 버금가는 ‘바깥일’을 했던 그녀는 당대인에게 부덕한 여성으로 인식되기 충분했을 것이다. 이에 고다 노부가 도쿄음악학교 교수로 활발히 활동한 시점에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들, 즉 그녀의 재능은 인정하되 품성이나 인격이 의심스럽다며 교수로서의 자질을 운운하던 언론의 비방과, 소위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으로 그녀의 퇴진을 종용했던 도쿄음악학교 남성교원의 행태는 어쩌면 남성중심의 지식인 사회에서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도쿄음악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물러난 이후 고다 노부의 행보는 완벽하게 그녀만의 사적 음악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는 상위계층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음악회’를 장려하고 그들을 위해 피아노레슨을 하거나, 개인 연주회를 운영하는 등 자신만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다 노부는 남성 중심 사회의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극복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남녀 간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만의 노선을 전략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운영한 ‘심성회’나 유럽의 살롱 분위기를 풍기는 연주회 등의 사적 음악공간은 남성 주도의 공적 영역 밖에서 노부가 주체적으로

88) 오고시 아이코 / 전성곤 옮김,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18-21.

만들어간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이는 서양 근대의 성역할 규범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녀가 추구한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성에게 어울릴만한 음악’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 위에서, 일본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역할을 규정하는 근대 서양의 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렴한 것이다.

그녀가 여성의 지위 향상 문제와 여성 간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를 일본 사회에 팽배한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 저항하거나 여성적 자의식을 가진 여성 해방론자로 보기는 어렵다. 고다 노부가 자신을 향한 언론의 거센 비판으로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던 1910년경은 일본 내에 이미 ‘신여성’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적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20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해방운동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 1886~1971)는 자신을 스스로 신여성이라 칭하며, “신여성은 남자의 이기심 때문에 무지하게 되고 노예가 되고, 육체만 존재하게 된 것 같은 여자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신여성은 남자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구도덕, 법률을 파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존의 남성중심의 도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⁸⁹⁾ 그러나 당대의 이러한 페미니즘적 인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다 노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여성관을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며, 일본사회 내에서 여성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하였다.

그녀의 음악 활동에 있어, 다수의 일본 대중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소수의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수를 위한 고급예술로서의 서양음악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남겼다는 것, 그리고 남성 중심사회에서 분노하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적극 영위해 나갔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복시킬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성별 간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면화했던 것에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89) 『중앙공론』(中央公論) 1913년 1월호. 가네코 사치코 / 이은주 옮김, “신여성의 출현과 그 궤적,”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111 재인용.

그러나 메이지시대(1868~1912)에 유년과 청년시절을 보내고, 다이쇼(1912~1926)를 넘어 쇼와시대(1926~1989)까지 일본 근대화와 함께 그 격변기를 겪으면서, 서양음악이 처음으로 일본 땅에 도입되고 문화예술로 향유되는 과정에 고다 노부가 여성음악가로서 일본의 서양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 정부 지원의 최초의 음악 유학생으로, 최초의 서양음악 작곡가로, 다재다능한 연주자로, 교육자로, 또 서양문화전파자로 일본 내 서양음악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고다 노부는 일본의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음악가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화 과정을 적극 이끌어낸 여성으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네코 사치코 / 이은주 옮김. “신여성의 출현과 그 궤적.”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편집). 소명출판, 2009, 105-128.
- 가토 치카코 / 이은주 옮김. “제국 일본에서의 규범적 여성상의 형성.”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하야카와 노리요 편). 소명출판, 2009, 82-104.
- 권윤경. “고다 로한의 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 맥카르고, 던컨 / 이승주·한익석 옮김. 『현대 일본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5.
- 민경찬. “일본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음악.” 『‘일본’의 발명과 근대』 (윤상인·박규태 편집). 이산, 2006, 175-199.
-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진재교·박의경 편집). 청어람미디어, 2004.
- 발리, 폴 / 박규태 옮김. 『일본문화사』. 경당, 2011.
- 부루마, 이안 / 최은봉 옮김.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2014.
- 비즐리, W. G. /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6.
- 야스다 히로시 / 민경찬 옮김. “일본 근대 양악사 개론.”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145-231.
- 앤드루 고든 / 김우영 옮김.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2010.
- 오고시 아이코 / 전성곤 옮김.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09.
- 이권희. 『근대일본의 국민국가형성과 교육』. 케포이북스, 2013.
- _____. 『국가와 교육, 메이지 국민교육사』. 케이포북스, 2017.
- 장윤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 로쿠메이칸(鹿鳴館)의 매개적 역할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종합예술학교, 2013), 3-4.
- 전수진·권혁진. “『녹명관』이 일본 근대문화 수용에 미친 영향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23 (2009), 69-79.
- 키타카와에이시 / 강태구 옮김. 『일본음악의 역사』. 민속원, 2013.

- 파일, 케네스 비 / 박영신·박정신 옮김. 『근대 일본의 사회사』. 현상과 인식, 1985.
- 東京オペラシティ文化財団. 『五線譜に描いた夢—日本近代音楽の150年』. 2013.
- 平高典子. “幸田延のウィーン留學.” 『論叢』 53 (2012), 101-121.
- _____. “幸田延のボストン留學.” 『論叢』 54 (2013), 191-211.
- _____. “幸田延のヨーロッパ音楽事情視察.” 『芸術研究』 7 (2015), 13-27.
- _____. “作曲家としての幸田延.” 9 (2017), 1-14.
- Galliano, Luciana. *Yogaku: Japanese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2002.
- Mehl, Margaret. “A Man’s Job? The Koda Sisters, Violin Playing,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Women’s History Review* 21/1 (2012), 101-120.
- Sondra Weland Howe, “The Role of Women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 Japan,”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2 (1995), 81-97.
- <http://www.kataoka-mandolin.jp/?cat=22> 검색일: 2018.04.01.
- https://www.wien.gv.at/wiki/index.php?title=Rosa_Gerold 검색일: 2018.04.01.
- <http://www.ne.jp/asahi/sayuri/home/doyobook/doyo00taki.htm> 검색일: 2018.04.03.
- <http://www.news-pj.net/npj/kobayashi-midori/20090309.html> 검색일: 2018.04.03.
- [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Junker_\(Musiker\)](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Junker_(Musiker)) 검색일: 2018.03.21.
- <http://www.oldtokyo.com/orchestra-chorus-of-the-tokyo-academy-of-music-tokyo-c-1910/> 검색일: 2018.03.21.
-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9D%B4%EC%87%BC_%E C%B2%9C%ED%99%A9 검색일: 2018.04.02.
- <http://rasensuisha.cocolog-nifty.com/kingetsureikou/2014/06/index.html> 검색일: 2018.04.01.
- <http://rasensuisha.cocolog-nifty.com/kingetsureikou/2014/06/index.html> 검색일: 2018.04.01.

Abstract

Koda Nobu (幸田延, 1870~1946) and Construction of Western Music Culture in Modern Japan

Park, Jeongsook

During the Meiji period, Japan actively introduced Western music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developed it as a nation-led initiative. Koda Nobu (1870-1946) is a woman musician who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Western music culture in modern Japan. She received Western-style modern music education under the modernization education system of Japan, after that, she became a professor of the Tokyo Academy of Music after returning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Vienna, Austria, as the first music stud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e was also Japan's first Western music composer. However, Japan's male intellectual society at the time was unable to accept Koda Nobu, a woman who served as an authority on Western music, and eventually forced her to step down from professions with various accusations and exclusion. Since then she continued her musical activities in her new private music space based on her own experience and knowledge. Although Koda Nobu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Western music being transmitted to Japan, she tends not to be mentioned so much in Japan's Western music histor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ocess of forming identity as a woman musician by revealing the activities of Koda Nobu, and discuss the gender role ideology of modern Japan.

Keywords: Koda Nobu, modern Japan, woman musician, woman composer, Tokyo Academy of Music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15일	2018년 5월 10일 - 6월 10일	2018년 6월 11일